東大新聞

發行人 鄭在冕
編輯人 吳國根
印刷人 方又榮
主幹 兪光鎭
編輯局長 金容喆
編輯部長 金贊柱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 8131~9
本社直通 ☎ 8577

每週火曜日發行

慶州大 中央圖書館 기공

오는 82年末까지 竣工할 계획

3천6백평규모의 매머드

총 建設費 31억원 投入돼

지상 4층은 모두 閱覽室

경주대 中央圖書館 기공식이 지난 31일 인문사회학관 앞에 위치한 건설부지에서 鄭在冕총장을 비롯, 건설부진, 각기관장,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인문사회학관이 지난 79년도 경주 캠퍼스의 첫건물로 착공된 후 한의학관이 건설되었고 기숙사건설로 마무리작업에 들어가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것에 이어 종합건설계획 4단계로써 기공된 경주 中央圖書館은 경주 東國人들의 지성과 학문의 요람으로서 82년말에는 웅장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날 식은 삼귀의례, 분향, 사홍서원, 시삽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인문사회학관 앞쪽에 위치한 同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연건평 3천6백36평의 매머드건물로서 약 31억원의 건설비를 투입하여 오는 82년 12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지하1층은 書庫로 지상4층은 모두 열람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외국의 여러 대학도서관 건물을 답사하여 설계함으로서 초현대식 시설을 자랑하게될 同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라멘 드조 구조로 건물面은 벽돌로 장식하고 1층바닥은 화강석으로 꾸밈과 동시 완전냉난방(heating)과 냉방(cooling)이 되도록 작동되는 최신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게 된다.

「벨」교수 특강

80년대 韓美관계로 美 연방교육성 수석보좌관 엘람 K·허츨러씨에

本校서 명예哲博학위 수여

本校는 지난달 10월29일 오전 10시30분 교수세미나실에서 美연방교육성 수석보좌관인 엘람 K 허츨러(Elam K. Hertzler)씨에게 경영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허츨러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문교부에서 체전한 韓·美 양국정부간의 교육에관한 양해각서」의 미국측 수석대표로 來韓하여 本校의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로 알려졌으며 이 각서는 韓美間의 영어교사 파견 비롯한 각부문 교원의 훈련과 한국학자의 교류 및 공동연구의 교환에관한 협정으로서 우리나라 교육과 연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韓美교육교류 협정 체결

「國際의 敎育者는 美교육」

「80年代 敎育」 특강

허츨러씨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육개발원 강당에서 「國際의 敎育者는 美교육」 및 「80年代 敎育」에 관한 10개 항목에 걸쳐 특강을 했다.

허츨러씨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개발원 강당에서 「韓美교육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10개항목에 걸쳐 특강을 했다.

신라문화 연구소 (소장=金元龍교수)가 주최한 제1회 「신라문화 심포지움」이 郭在冕총장및申宗淳학장을 비롯한 각대학 학장을 비롯한 유수한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新羅文化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아래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 郭총장은 「新羅萬波思潮說」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이번 심포지움에서 「경주대학은 신라문화의 연구」

高強度 콘크리트의 耐久性에 관한 研究

金生彬
<工大교수·콘크리트工學>

1. 序論

高强度콘크리트란 實用性이나 經濟上의 設計基準强度가 600kg/cm² 이상 800kg/cm²정도의 圧縮强度가 높은 콘크리트로서 興味方法은 加圧脫水方法, 高分子系材料나 高性能減水剤를 사용하는 方法 및 高溫高圧(Autoclave) 養生에 의하는방법등이라가지가 있겠다.

本研究에서는 이중 대표적이고 실용적인 것으로 高性能減水剤와 高溫高圧養生및 遠心力다짐등에 의해 高强度의 콘크리트파일(말뚝)을 만들어 凍結融解試驗을 하였으며 各種의 耐久性의 相関的인 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보통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의 설계준비강도는 200kg/cm² 정도이다)

본실험에서는 슬럼프 콘크리트를 고온분말을 加하여 비빈 콘크리트를 고압하에서 양생함으로써 고강도를 얻을 수 있는 원리이 C.A.Menzel에 依하여 연구발표되었으며 근년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압축강도 800kg/cm²~1,000kg/cm²의 고강도콘크리트 PC파일이 제조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며 그외에 교량의 PC보나 Truss 교에서도많이이용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混和材料의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高性能減水剤를 콘크리트 비빌 때 첨가하면 단위수량을 20~30%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강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시멘트 페이스트의 입자표면에 電氣二重層이라불리우는 帶電層이 생기므로써 입자 상호간의 靜電的相互反撥力에 의한 표면 活性化작용에 의하여 시멘트입자가 流動性을 크게 개선시킬 수도 있다.

이와같은 고강도콘크리트의 冬期에서 기상작용에 대한 동결융해에 관련 내구성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음연구보고가 있지만, 내구성이 좋가한다는 경우와 반대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說 등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다짐법(원심력 다짐과 진동기 다짐), 양생법(증기양생후 고온고압양생, 증기양생후 水中14일 양생, 표준양생) 및 AE劑유무에 따른 고강도콘크리트의 耐久性에 관하여 연구를 함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中部以北지방에는 冬期의 기온강하가 크므로 凍結融解 및 凍害를 주는 사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많다.

시멘트흐름의 동결융해에 의한 崩壞機構는 아직 완전하게 해명되어 있지않지만 주로 毛細管隙中의 물이 동결할 때 体積增加(약 9%)에 의한 물壓의 작용 작용 작용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동결율은 한 공극의 물에서 먼저 시작되고 차츰 작은 공극으로 확대해 가는데 Gel공극은 아주 작기 때문에 (지름은 15~20 10⁻⁷m이다) 영하 78도C이상에서는 결빙이 행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온도저하에 따라서 Gel水도얼음과의엔트로피차이에의하여 얼음을 함유하고있는 모세공극에 들어가 에너지포텐셜을 작게되며, Gel水의 확산으로水塊의 成長과팽창을 불러일으킨다.

2.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의 배합

본研究에 사용된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로서 物理的인 값은 표2-1과같고 물질의 物理的性質은 표2-2와같다.

또 "高性能減水剤로서는 花王石鹼(株)의 Mighty150을 AE제로서는 山宗化學(株)의 빈졸을 사용하였으며, 배합은 시험비기에 의해 배합설계하였으며 AE제를 사용하지 않을 때와 AE제를 사용함 때는 고성능감수제만을 AE제를 사용함 때는 고성능감수제와 동시부인하여 비볐으며 그의배합표는 표2-4와같다. 콘크리트믹서는 용량이 1백ℓ의 强制式믹서로써 콘크리트를 1분간 비빈 때에 콘크리트시멘트에서 분말이 분말을 加하여 비빈 콘크리트를 고온

표 2-1 시멘트의 물리적 시험값

비중	비표면적 (cm²/g)	응결 시발(시-분)	응결 종결(시-분)	안정성	물리값 (mm)	휨강도(kg/cm²) 3일	7일	28일	압축강도(kg/cm²) 3일	7일	28일
3.15	3350	2-20	3-30	양호	268	34	46	67	188	245	402

표 2-2 골재의 물리적 성질

종류	표건비중	조립율	흡수율
잔골재	2.62	3.06	1.65
굵은골재	2.65	6.62	0.57

표 2-3 고성능 감수제 및 AE제

명칭	주 요 성 분	비중	상태	略기호
Mighty150	β-나프타린 술폰산염 포루마린 화합물	1.221	액체	MT
Vinsol	천연 수지 산염	1.06	"	VS

표 2-4 콘크리트의 배합

종류	슬럼프 치수 (cm)	슬럼프 범위 (cm)	공기량 범위 (%)	W/C (%)	S/a (%)	단위량 (kg/m³) C	W	S	G₁ 16~4mm	G₂ 13~4mm	MT (%) C×0.5	VS (%) C×0.007
Non AE 콘크리트	19	8±1	1.5	34	38	450	153	681	548	548	2.25	/
AE 콘크리트	19	8±1	4.5	34	38	450	153	681	548	548	2.25	2.11.5

표 3-1 원심력 성형조건

속도	저속	중속	고속
다짐시간(분)	1.0	2.0	4.0
저부점 회전수(rpm)	149	334	528
원심력(g)	2	10	25

3. 供試體의 제작과 실험방법

3-1 공시체의 제작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의 공시체는 전체 길이 20cm 높이 30cm 두께 4cm의 원통형으로 콘크리트를 비빈직시 다음 표3-1의 조건하에서 원심력콘크리트파일형기에 의하여 제작하고 손다짐콘크리트파일과 바이브레이터 진동다짐콘크리트파일을 각각 성형한 후 공시체를 각시험체에 이브레이터로 다짐)을 비교함 때 같은 시수로 하였다. 또 압축강도와 동결융해 시험용으로 φ10×20cm의 원주 공시체를 각시험체에 3개씩 만들었다. 또한 공시체의 성형한 후 양생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증기양생후 Autoclave양생 (SC-AC라 略함)
(2) 증기양생후 수중 14일양생 (SC-WC라 略함)
(3) 표준수중양생 (WC라 略함)

이상의 양생방법을 그림으로 表示한 것이 그림 3-1이다.

3-2 실험방법

상기의 콘크리트배합과 공시체 제작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공시체를 만드는데 한 벳치에서 공시체 2개 이상을 만들며 이 중 한 공시체는 동결융해 시험전에 압축강도시험을 하였으며 다른 공시체는 동결융해시험을하여 규정 사이클 300사이클까지 못 가는 공시체는 동결융해시험을 60회 역시 동결융해 시험 까지는 작동시킨 후 동결융해 시험 수명 압축강도시험을 측정하여 耐久性과 强度적하는 관계 등을 알아보았다. 이 표3-2는 각종 공시체의 종류와 이들의 시험전의 여러 값 들이다.

凍結融解시험은 ASTM C 666-77의 방법(水中 급속 동결융해시험)에 따라서 各 공시체 마다 동결융해시험 10에 Cycle에서 동결융해시험을 측정하고 변화가 없는 것에서는 20 Cycle 마다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동결융해 Cycle은 매 하17·8도C~영상4·4도C의 온도범위에서 소요시간 약 3시간으로 하여 시험하였으며 대표적인 각 Cycle에서 도표결과 인액과 공시체 중량변화의 관계는 그림 3-2와 같다.

시험에 사용된 시험기는 丸井會社製의 쇼百脚水中凍結融解시험기를 사용하였고, 동탄성계수의 측정은 同社제품의 Ultra Sonoscope를 사용하였다.

4. 實驗結果및 考察

실험결과로서 얻어진 (표4-1참고) 動彈性係數는 φ10×20cm공시체와 큰 크리트파일 공시체에 대하여 ultra Sonoscope 의하여 측정하였다.

우선 φ20×20cm 원주공시체에 대하여는 그림4-2에서 보는바와 같이 각 양생별 모두가 동탄성계수가 클수록 압축강도의 비례하여 졌으며, 각 양생간의 이들관계는 비례하여 같은 경우 압축강도 동탄성계수의 값이 같은때 동탄성계수 및 압축강도양도의 값을 Autoclave(SC-AC)에서 제일 큰 값으로 되었고 다음이 WC 이며 공기양생은 제일 작았고 SC-WC의 경우도 중간값이었다. 제일 작았던 SC-WC의 경우 동결융해 시험결과 작은 값으로 되며 동결융해 시험결과 (표4-1참고)에서 내구성계수를 비교할때 최상 최기강도가 높다는 것이 나타나고 동탄성계수가 낮은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문제됨을 의미한다.

Autoclave양생에서 특히 동탄성계수가 떨어지는 이유는의 하나로서 고온고압하에서 양생함으로써 고강도를 얻을 수 있는 원리이 C.A.Menzel에 依하여 연구발표되었으며 근년에는 외국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압축강도 800kg/cm²~1,000kg/cm²의 고강도콘크리트 PC파일이 제조되어 실용화되고 있으며 그외에 교량의 PC보나 Truss 교에서도많이이용되고 있으며 그외에 교량의 PC보나 Truss 교에서도 混和材料의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高性能減水剤를 콘크리트 비빌 때 첨가하면 단위수량을 20~30%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시멘트 페이스트의 입자표면에 電氣二重層이라불리우는 帶電層이 생기므로써 입자 상호간의 靜電的相互反撥力에 의한 표면 活性化작용에 의하여 시멘트입자가 流動性을 크게 개선시킬 수도 있다.

이와같은 고강도콘크리트의 冬期에서 기상작용에 대한 동결융해에 관련 내구성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 많음연구보고가 있지만, 내구성이 좋가한다는 경우와 반대로 증가하지 않는다는 說 등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다짐법(원심력 다짐과 진동기 다짐), 양생법(증기양생후 고온고압양생, 증기양생후 水中14일 양생, 표준양생) 및 AE劑유무에 따른 고강도콘크리트의 耐久性에 관하여 연구를 함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中部以北지방에는 冬期의 기온강하가 크므로 凍結融解 및 凍害를 주는 사례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많다.

시멘트흐름의 동결융해에 의한 崩壞機構는 아직 완전하게 해명되어 있지않지만 주로 毛細管隙中의 물이 동결할 때 体積增加(약 9%)에 의한 물壓의 작용 작용 작용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즉 동결율은 한 공극의 물에서 먼저 시작되고 차츰 작은 공극으로 확대해 가는데 Gel공극은 아주 작기 때문에 (지름은 15~20 10⁻⁷m이다) 영하 78도C이상에서는 결빙이 행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온도저하에 따라서 Gel水도얼음과의엔트로피차이에의하여 얼음을 함유하고있는 모세공극에 들어가 에너지포텐셜을 작게되며, Gel水의 확산으로水塊의 成長과팽창을 불러일으킨다.

고성능 減水劑 첨가로 强度 높일수 있어

養生別 동탄성계수 크기에 따라 압축강도 減少

공기含有量의 증가에 크게 壓縮强度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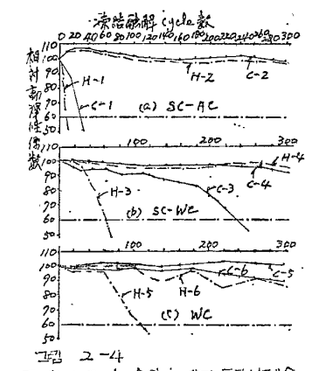


그림 2-4 동탄성계수와 상대 동탄성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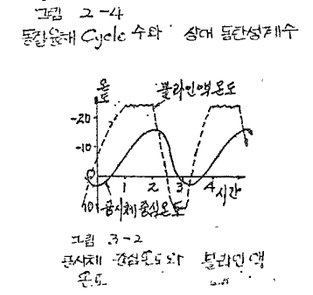


그림 3-2 공시체 중심온도와 블라인앤 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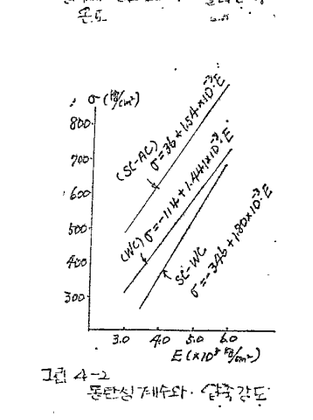


그림 4-2 동탄성계수와 압축강도

그림 4-3(a)에서 공기량 4.8%인 경우는 원심력 콘크리트파일이나 손다짐콘크리트파일 모두가 300 Cycle에서 耐久性係數는 96%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였으나 遠心力콘크리트파일인 경우 耐久性係數 5%(27 Cycle)이고, 손다짐콘크리트파일에서는 2% (9 Cycle)로서 극히 耐久性이 뒤떨어졌다.

Autoclave 양생시에는 아에서 공기량이 4.8%인 경우는 바와같이 공기량 1.7%정도에서는 상당히 좋은 상태였으나 遠心力콘크리트파일의 경우 耐久性係數는 5%(27 Cycle)로서 극히 耐久性이 떨어지지만 손다짐콘크리트파일의 경우는 96%이상으로 좋았으며 공기량 1.2%인 경우는 보는바와 같이 공기량 1.2%정도에서는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의 경우 耐久性係數는 95%이상으로 좋았으나 공기량 1.2%인 원심력콘크리트파일은 2백40Cycle에서 耐久性係數 48%이고 공기량 1.9%의 손다짐 콘크리트파일은 58%로서 저하하였다.

(3) 標準水中양생 (WC)

경우 고강도콘크리트파일을 표준수중양생 경우 고강도콘크리트파일의 공기량과 압축강도 및 동탄성계수, 耐久性관계, 相対동탄성계수, 중량감소율및 강도저하율에 관하여 고찰해 본다.

4-1 壓縮强度에 미치는 공기량과 동탄성계수

표준양생방법에 의한 φ10×20cm의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그림 4-1에서와 같이 공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저하되며 공기량 1~5% 전후에서 공기량 1%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 저하율이 3%정도였다.

고강도콘크리트파일의 공기량과 압축강도는 공기량 1%증가에 대하여 약 3%정도 저하하여 공기량이 많아질수록 압축강도의 저하율은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원심력 콘크리트파일공시체에 대해서도 경향이 있고 특히 원심력 콘크리트파일의 경우 손다짐콘크리트파일의 경우가 동탄성계수 및 압축강도양도의 값을 보주고 있다.

그림 4-3(a)에서 공기량 4.8%인 경우는 원심력 콘크리트파일이나 손다짐콘크리트파일 모두가 300 Cycle에서 耐久性係數는 96%이상으로 상당히 좋은 상태였으나 遠心力콘크리트파일의 경우 耐久性係數

참석조…비때문만 없었지

백상체전 뒷얘기들

本校

8천여 觀衆들의 힘과 슬기를 모아 이루어졌던 개교 75周年紀念「白象体典」이 지난 28일 雨中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무사히 마쳤다。

특히 이번 体典은 7代학도호국단이 색로 출범한 후 처음있는 學校的인행사로 학교단의 活動 하나하나를 주의깊게 바라보는 많은 學生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더디첨 내린 비가 行事를 운영하는 집행부나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어려운 점들을 남겨 주었으며 또한 갖가지 해프닝도 속출하였다。

그리하여 취소된 종목과 이모든 과정을 뿐만아닌 경기규칙에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상자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경기규칙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양쪽팀의 선수인원이 엄청나게 차이나 부당하게 시합에서지게 하기 위한 느낌의 혼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쉬워진 점이로 지적될 수 있겠다。

体典후에 있었던 휴강 소식도 너무 늦었던 감이 있었으며 체육관에서 있었던 육아제도 월반시절과 폐회식에서 있었던 미리 공고를 하면 체전참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종류의 공고는 시기를 앞당겨 했어야 원래 의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록。

너무 촉박했던 음원선

○:올해 전국추계 대학축구에 본교는 12년만에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지난27일, 단국대에 아깝게 패하고 말았는데, 패배라는 사실보다 더욱 안타까왔던 것은 본교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양구보다 아주 오로 치우친 것은 사실이지만 모처럼 결승까지 진출했던 이번 축구경기에서만은 기호도의 체원을 초월해 열띤 응원이 뒤받아야했었던것。

상대편에서는 거의 전교학생들을 까지 참석하고 학생들의 응원도 적극적이었던것에 비해 우리측에서는 초라할 정도로 응원하는 학생들이 적었는데 이는 경기는 고사하고 응원에서부터 이미 패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본교와 경주대에서 개교75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백상체전이 지난28일 막을 내렸다。이번체전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참여 부족과 경기규칙위반으로 행사주최측의 사전 홍보가 미흡했었다는 점이다。

◇원활한 운영기교 아쉬워

이번 白象体典은 많은에 내린 비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점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실외인 대운동장은 진흙밭이 되어 거기서 행해지는 행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体典에 참가한 학생들은 추위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이러한 관계로 몇 行事들을 잘못진행하거나 무우하게는 이러지지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었는데, 여학생 경보대회에서는 더욱 희시작 바로 전에 참가할 선수들을 모집했을 뿐만아닌 경기규칙에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상자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경기규칙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양쪽팀의 선수인원이 엄청나게 차이나 부당하게 시합에서지는 일도 생겼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참가선수들의 인식부족이라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주최측에서 자신들의 운영상에 미흡함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하고 다음번 행사에는 경기규칙을 자세히 홍보함과 동시에 경기운영도 정당하게 할 수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한 운동장시정이 최하의 상태에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시정을 좀 더 體典 준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한 행사를 치룰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慶州大 참석조건 없는 백상체전이 지난 27·28日 양일간에 걸쳐 화려하게 펼쳐졌던, 특히 이번 체전은 학교별전의 학교체전인데 88올림픽 유치와 계속되는 스포츠의 숭인보 무드로 정적열정을 불어넣어 주었으며 자신의 타율을 스스로 인정하여 줬다。지난 1세기에 동안 자기들이 피로한 독자들에게 쇠비물으로 베스트셀러가 탄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안 팔리는 문학작품은 문학성을 가진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문학성을 가진것이 잘 팔리는 체에는 뛰어난 문학성을 가진것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명작이라고 하는 문학들이 잘 팔리고 오래 팔리는 것일을 다시 한번 상기할필요가 있다。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다지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었던 상업주의 시비가 왜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렸던 것인가。그것은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대중화의 과정으로 전이되고 있었으며, 출판사 과잉 경쟁은 보, 그래서도 안될 문학이 이전의 독특한 전지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현실들이 도대성을 상조하고 그 단편적 현관이 문학에 대한 경직된 이해를 낳게 했다。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우리 문학사에서 70년대의 상업주의 문학은, 김광광, 50년대의 김내성·한 독자들에게 쇠비물으로 베스트셀러가 탄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안 팔리는 문학작품은 문학성을 가진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문학성을 가진것이 잘 팔리는 체에는 뛰어난 문학성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명작이라고 하는 문학들이 잘 팔리고 오래 팔리는 것일을 다시 한번 상기할필요가 있다。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다지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었던 상업주의 시비가 왜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렸던 것인가。그것은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대중화의 과정으로 전이되고 있었으며, 출판사 과잉 경쟁은 보, 그래서도 안될 문학이 이전의 독특한 전지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현실들이 도대성을 상조하고 그 단편적 현관이 문학에 대한 경직된 이해를 낳게 했다。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우리 문학사에서 70년대의 상업주의 문학은, 김광광, 50년대의 김내성·한

韓國文壇은 지금 결으로 보기엔 무척 평범한 것 같다。그러나 지난 5月 두개의 文人団体가 생겨나면서부터 뭔가 석연찮은 기미가 보인다。한긴보다 심각한 문제는 文人단체의 兩分에 멍든 것은 아니다。문화상, 고료, 신인등단, 紙面문제등 아직도 한국문단이 안고 있는 몇가지 갈등과 난제는 한국문단의 건전한 발전을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않은 관심과 걱정을안겨주고 있다。이에 本紙는 가을학기를 맞아 東國文學의 歷史와 전통을 재정립하고 未來의 主役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이해를 주고자하는 뜻에서 機題와 같은 새로운기획을 추진하기로했다。필자와 독자들의 성의있는 동참을 기대한다。 〈편집자註〉

8、韓國文壇과 東國文學
7、商業主義 是非
6、文藝誌 育成
5、同人活動및 紙面
4、新人 登壇
3、原稿料
2、文學賞
1、두개의 文人團體

韓國文壇 무엇이 問題인가

〈7〉

<文學評論家>

金炳翼

大衆문학과 純粹문학 사이에서 고민하는 作家

商業主義는 資本主義의 부산물

文化현상·社會構造에대한 분석과 이해 있어야

3、4년전 주로 일간지를 통해 제기되었던 우리문학에서의 상업주의 시비는 이제 이르러 무책임하면서도 그럴 듯한 명제로 생각되는 것이 아니었던 듯 보여주게 없었던 본문주제로 생각된다。그것이 무책임하다는것은 명철한 사고와 논의의 결여로 확대되었고 현대의 산업 사회에 이르러서는 모든 계층 즉 전국민이 그 독자가 되었다는것을 가리킨다。그리하여 작가들은 불과 2、3세기 동안에 굉장 높은 귀족층들의 비호 아래 창작활동과 그들의 기호에 맞추는 문학적 취향을 만들어내던 종래와 달리 상대에서 이제 문학적 지적 수준이 가장 열등하고 그 기호에서 작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그리피트, 문학과 상업주의는 결부되고 이 논의들에대한 성찰에 이질문이 귀속될수 있기 때문이다。

3、4년전 시비는 그 상업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체제속에서 살고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말해 줄 뿐이다。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상업주의의 문제〉이라는 표현 더선에, 문이 뭔가 아하다면 〈대중문학〉이란 용어로 고쳐 저야 한다는 것을 못하며, 어떤 작품을 평가한다는데 있어 〈상업주의적 오스〉를 찾아내려거나 보다는 〈사변 문학적오스〉를 찾는것이 보다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상품과 마찬가지로, 문학이란 상품 역시 잘 팔리는 잘 팔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그렇다면 해석 저답한 대중소설 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그렇다면 해석 저답한 대중소설 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기는 70년대의 최인호·조세희·이문열·김원일·김병총·김이연 등 작가들부터이며 그 작품들이 대중소설에 속한다는데 있어 그 문제가 그런데로 이르러 문학사에서 30년 동안 1세기에 동안 작가들이 피로한 독자들에게 쇠비물으로 베스트셀러가 탄탁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안 팔리는 문학작품은 문학성을 가진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문학성을 가진것이 잘 팔리는 체에는 뛰어난 문학성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명작이라고 하는 문학들이 잘 팔리고 오래 팔리는 것일을 다시 한번 상기할필요가 있다。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그다지 크게 문제삼을 필요가 없었던 상업주의 시비가 왜 우리에게 심각하게 들렸던 것인가。그것은 우리 사회가 70년대 이후 대중화의 과정으로 전이되고 있었으며, 출판사 과잉 경쟁은 보, 그래서도 안될 문학이 이전의 독특한 전지적, 경제적, 문화적, 이념적 현실들이 도대성을 상조하고 그 단편적 현관이 문학에 대한 경직된 이해를 낳게 했다。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이다。우리 문학사에서 70년대의 상업주의 문학은, 김광광, 50년대의 김내성·

商業主義是非…문학이 취할태도에 대한 성찰요구

이해되어야 할 부분도있고, 보다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부분도있다。

가령〈호스티스 문학〉이란 이름으로 매우 비난하기에 앞서, 우리는 호스티스라는 존재가 70년대의 경제적 부산물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할것이며, 그것이 대공황에 처했던 30년대의 이상·김유정으로부터 염상섭에 이르기까지에도카 폭격이 동양학으로써 탐시의 시대상을보여 주었다는 점과 연결시켜 70년대적 삶의 양상에 대한 리얼리스틱한 비판을 드러내 주는 것으로 높이 평가할수도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호스티스가 동장하는 소설 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소설 속의 호스티스가 어떤 문학적 현실적기능을 하고 있으며 작가가 그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했는가를 검토하는 능력에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소설이 좋은가 나쁜가하는 점을 검토해야 할 것이지, 호스티스가 등장했다는가, 많이 팔렸다는가, 영화화되었다는가 하는 객관적 사실로가 늘림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더구나 어떤 시대에도 타락은 없게 마련이고 문학사의 기술은 그런 나쁜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학을 검토하는 것이다。

구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보아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상업주의 시비가 그래도 우리에게 제기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대중화 사회로 진행되어 가는우리의 현실속에서 문학이 어떻게 대응,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요구한다는 점이다。

이 생활은 대중사회가 등장하는 타락현상에 작가와 작품이 어떻게 적합하며 〈진정한 가치〉를 찾조하는가는 말할에게 어떻게 문학이 개입하는가를 더불어 타락으로 밀려 가는 대중을 구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것은 명철한 주제에 대한 분석적이고도 냉정한 사고와 수난되지않고 잠정적인 발언들이 교환되었으며 그리서 그 문제가 그런데로 우리가 그논쟁의 의미를 전저겐수 있다는것은 그것이 가령 대중사회론이란 소비문화론같은 일련의 논의들과 그 결부되고 이 논의들에대한 성찰에 이질문이 귀속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그리피트, 문학과 상업주의는 결부되고 이 논의들에대한 성찰에 이질문이 귀속될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상업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스스로가 자신이 어떤 체제속에서 살고있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을 말해 줄 뿐이다。이러한 지적은 우리가 〈상업주의의 문제〉이라는 표현 더선에, 문이 뭔가 아하다면 〈대중문학〉이란 용어로 고쳐 저야 한다는 것을 못하며, 어떤 작품을 평가한다는데 있어 〈상업주의적 오스〉를 찾아내려거나 보다는 〈사변 문학적오스〉를 찾는것이 보다 정당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상품과 마찬가지로, 문학이란 상품 역시 잘 팔리는 잘 팔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그렇다면 해석 저답한 대중소설 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의미있는 것이다。

그것은 고급문학의 가치를 신장시키면서도 저급문화의 수준도 향상시켜야 한다는것을 못하며 우리가 유행적인 용어에 말려들어 한 묶음으로 비난하기 앞서 우리의 문화현상과 사회구조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지한 분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것을 말하는 것이다。

雨中에도 열성, 칭찬할만·慶州大도 참여 저조 못면해

言語구사 민망했던 육아제·폐회식엔 3백여명 정도

◇본교와 경주대에서 개교75주년 기념으로 열렸던 백상체전이 지난28일 막을 내렸다。이번체전을 마무리 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참여 부족과 경기규칙위반으로 행사주최측의 사전 홍보가 미흡했었다는 점이다。

◇원활한 운영기교 아쉬워

이번 白象体典은 많은에 내린 비로 운영상의 어려움이 점을 남긴 채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실외인 대운동장은 진흙밭이 되어 거기서 행해지는 행사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体典에 참가한 학생들은 추위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이러한 관계로 몇 行事들을 잘못진행하거나 무우하게는 이러지지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었는데, 여학생 경보대회에서는 더욱 희시작 바로 전에 참가할 선수들을 모집했을 뿐만아닌 경기규칙에대한 인식부족으로 현상자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줄다리기 경기에서도 경기규칙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양쪽팀의 선수인원이 엄청나게 차이나 부당하게 시합에서지게 하기 위한 느낌의 혼돈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쉬워진 점이로 지적될 수 있겠다。

体典후에 있었던 휴강 소식도 너무 늦었던 감이 있었으며 체육관에서 있었던 육아제도 월반시절과 폐회식에서 있었던 미리 공고를 하면 체전참여도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종류의 공고는 시기를 앞당겨 했어야 원래 의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록。

너무 촉박했던 음원선

○:올해 전국추계 대학축구에 본교는 12년만에 결승까지 진출했으나 지난27일, 단국대에 아깝게 패하고 말았는데, 패배라는 사실보다 더욱 안타까왔던 것은 본교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의 양구보다 아주 오로 치우친 것은 사실이지만 모처럼 결승까지 진출했던 이번 축구경기에서만은 기호도의 체원을 초월해 열띤 응원이 뒤받아야했었던것。

상대편에서는 거의 전교학생들을 까지 참석하고 학생들의 응원도 적극적이었던것에 비해 우리측에서는 초라할 정도로 응원하는 학생들이 적었는데 이는 경기는 고사하고 응원에서부터 이미 패배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體典에 참가했던 여러 學生들을 위해 29日 수업을 전면 휴강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28일오후에야 나붙어 많은 學生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는데…。

내용인 즉 白象體典의 공식일정이 확정되었던 지난 주까지만 해도 29일 수업여부에 의문을 가진 일부 學兄들이 담당부서에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당연히 수업을 한다는 式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

해서 28일 체전에 불참했거나 공고를 미처 보지 못했던學兄들은 登校하고서야 그 사실을 알고 발길을 돌렸다는 웃지못할 일도 있었다。

회전무대

대조적이었던 전산원체육대회

○:분교 부설 전산원체육대회가 열렸던 지난 31일 東岳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女學生들이 눈에 띄어 보는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눈길을 끈 한복차림의 女學生들은 체육대회 入場式에 참가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전산원 학생들이 함께 힘과 정을 겨루며 젊은 知性을 맘껏 자랑했던 이날 체육대회를 지켜본 못 학형들의 衆論은 우천관계로 일부 행사는 부산되었던 점도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았던 점과 참가한 자리에서 형도로 모두 참가한 자리에서 형사를 직무는 전산원생들의 모습을 보고 東國人들이 만성해야할점은 많을 듯。

선수조차불참한 종목까지

○:白象체전의 원래개최목적은 상호우리를 돈독하고 체력을 증진하자는 것이었는데 막상당일에는 원래의도와는 거꾸로 생기지 않았나하는 것이 東國人들의 衆論인데…。

우천으로 말미암아 행사계획이 차질이 빚어졌지만 선수들조차 참석하지않은 종목이 있었다는 점에도 미숙한점이 있었을 뿐더러 우천인데도 불구, 폐쇄한 날씨에도 진행하기 힘들 많은 종목을 치룬 점은 한편 놀랍고도 한편 이해하기 힘들 처사라고 體典에 참가한 東國人들은 한마디씩。

때늦게 불었던 휴강공고

○:「雨中에도 불구하고 白象

雨天때문이라지만…… 너무 허전했던 體典

●Y.L SPECIAL INTERVIEW
金恩國
27년만에 고국에 일시 정착한 잃어버린 영혼의 순교자

●年下의 중국청년과 한국의 농구선수 蔣雪梅 러브스토리
"살항합니다, 미스 짱"

일본 사법부와 싸워 변호사 취득한 총각
金敬得, 그는 누구인가
8살에 잃은 부모를 16년간 찾아헤맨 의지의 Y·L수기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

●獨占 Close-up
네덜란드 現地취재
許丁茂

●집중연구 自殺

독자가 추천한 디자이너 5人의 개성 양희은의 지그재그 세계일주 見聞記②
포멀웨어의 새로운 발견 스위스·스페인 편

●'81년「中央公論」신인문학상 당선작품
다까하시 요오코 비가 좋아

●여성의 性意識과 性行爲 여성의 性관심도 어떻게 변화하나

●긴급동의 / 여대생 취업, 문제있다

●實用情報 / 두리번거려 '알차게 찾아먹기' '무료시대가 왔다'

'81년「PLAYBOY」지를 휩쓸은 도로시 스트래튼의 삶과 죽음 피지 못한 흑장미

●주요 일간지 연재소설작가 총등장
'내 소설의 여주인공은 이런 여잡니다'

●연예 프로모터 이명순이 털어놓는 인기인들의 감춰진 뒷얘기 김수현씨 '칼날'씨

中央日報社 1,700원 11월호

◇短篇小說

이무기

<1>

金寅鎬:글
<文理大 國文科>
장명규:그림
<佛敎大 美術科>

그는 아내의 진짜얼굴을 찾고있었다. 길거리에서 근무실에서 또 산에서 아내를 생각했다. 이무기, 살인, 그는 아내를 이해할수 없었던때부터 산을 찾았다.

동남향으로 위치한 산은 항상 비밀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다. 저수지쪽에서 솟은 불출봉(不出峯)을 바라보면, 동편 산등성이에서 떠오른 태양이 온종일 산의 후사면(後斜面)을 피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협한 절벽이 병풍처럼 둘러친 내장산을 향시 경외감으로 우러러보았다. 톨톨 산세가 거친 탓으로 〈임산금지〉팻말이 붙은후 덤불 잡목과 관목, 가시넝쿨이 부성해진 산에 사람들의 발걸이 끊긴 간밤도 었겠으나, 산의 그림자는 신비의 빛을 은은히 풍기였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잠잎처럼 예리한 섬달 바람을 색삼 확인하고있었다。신작로에서 산의 일부까지 길목은 저수지를 끼고 돌아가는 맑음 더 멀고 황량하였다。그러나 막내딸에게 들은 전설만으로도 산이 그를 유혹하기에 충분했다。곧 중학교에 진학하는 딸은 얼마에게들은 이야기라며 좋아라 하였다。

「아빠 아무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좀 들어줘요?」

하며 딸은 아내의 음성까지 흉내내며 연극배우처럼 대사와에 열중했다。

옛날 내장산에 도사(道士)와 사냥꾼이 있었다。도사는 벼랑 위 동굴에서 도를 닦고 사냥꾼은 노루를 잡으로 다녔는데, 사냥꾼이 노루를 쫓다가 외진 벼랑에서 도사를 만났다。도사는 몸가와 얼렌들이 득실거리고, 옆에 뱀이 똬아리를 틀고 있었는도 놀 부처처럼 참선하고 있었다。사냥꾼은 그 동물에 올 때마다 변함없는 도사를 보았고 느끼는 것이 컸다。어느날, 벼랑물에서 서성거리는 도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해가 질 때에 벼랑에서 뛰어내리면 신선령이 된다」라는 계시를 받았지만 그렇게 도를 닦아도 죄가 많아 뛰어내리기 힘들었다는 거였다。

사냥꾼은 자신이 죄없는 짐승을 수없이 죽였기에 먼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벼랑에서 뛰어내렸다。곧이어 도사도 뛰어내렸는데, 사냥꾼은 하늘로 오르고 도사는 그런 전생이었다。

낮게 내려앉은 구름이 곧 눈이 쏟아질 것을 예보하고 있었다。산행을 서둘러 목적지〈불출암〉까지 오르는 것만이 문제였다。그러나 산을 타면 항상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내를 생각하면 산을 찾아야 했다。

아내는 유독 잠버릇이 심했다。특히 이불 갈고 잠꼬대하기 일쑤였다。언젠가는 꿈을 꾸는 지 고함을 지르며 진탈을 흘리고 있었다。

아악! 이무기, 이무기! 왜 사람을 죽여。…산, 산…

처음에는 아내를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으나 수시로 악몽을 꾸는 아내 곁에서 그는 차츰 잠을 이룰 수 없었다。이무기, 살인, 산을 그의 머리에서 지워낼 수 없었다。

이다음 그는 자신의 고집과 결벽증이 못마땅하기도 하였다。퇴근을서 두르는 그에게 잠을 수사과 직원인 김경위가 물어왔다。

「서경위, 오늘은 산행을 미루고 나하고 술이나 한잔 하자?」

「무슨말씀。얼려해 주어서。」

그는 여전히 서류를 챙기며 지난 밤부터 떠두했다。

「자네먼 아이 없어。그럼, 오늘은 어딜 가나?」

「내장산—」

「뭐라구? 이 사람아。그 산은 별로 볼지도 않을 뿐더러 자네가 즐겨찾는 암자 따위도 없는 것을이는 줄 잘 저번 모르나?」

김경위는 눈을 밝혀이면서 말을 덧붙였다。

「그곳은 날씨이지만 요새같은 날씨에 오르기는 적당하지 못해。산길을 찾기 힘들고 바위가 쉽게 부서지고 눈이 많은 곳이야。서경위, 일기 좋을때 가는게 어때?」

「그래,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유악 산 짠뒷 구름 탓인지 오늘한 삭풍 들을 느끼고 있었다。아직〈불출암〉까지는 까마득했다。산을 향한 시야의 측정거리는 가까운듯하면서도 멀었다。눈이 내리면 길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내의 입에서 나온 산을 찾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갑자기 얼은 흰 백의 적주발은 휘파람소리같이 기묘한 비명을 지르며 나부꼈다。얼어붙은 흙을 밟는 소리가 깊은 밤 아내의 이 가는 소리만들이나 소름끼류가 떠올랐다。

수천은 뭘직한 까마귀떼가 고을에서 산기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점점 가깝게 들려오는 기분나쁜 색들의 울음소리가 마치 급정거하는 자동차의 소음처럼 먼미를 흔든시켰다。저수지에서 벌떼는 벌써 산이 오솔길도 끊어져, 이제 그는 얼굴을 스치는 나뭇가지와 가시넝쿨을 헤치면서 전진하였다。부스러지는 바위의 경사를 힘겹게 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돌아보면, 랜턴을 길이림 눈을 쉴게 할한눈으로 변하고, 봉우리의 윤곽이 어둠이 금방 괴물처럼 앞을 막아섰다。

아내는 늘 파부하고 여자와 바람을 피워도 웃고 있었다。그녀 자신이 사업에 실수하고 실의에 빠져있어 맥이 풀리고 얼굴 점점 아내앞에서 웃고 있었다。그는 점점 아내는 점차 재산을 늘려가였다。카바레와 집을 거의 벗어나는 일이 없는 아내가 불교신자도 아니면서 산찾이나 법종 전람기금에 사회사업가처럼 돈을 뿌리는 것이 그는 몹시 아니꼽고 불쾌하였다。

문득 아내의 미소를보면 절망하였다。기로는 산동우리 절벽밑을 따라 우측으로 조금 가면 암자를 찾게되었는데, 거기에 불빛이 있었다。그는 이 늦게 어둠속에서 넘어지고 미끄러지도 않게 해주지는 않았다。〈불출암〉스님의 특경소리가 눈내린 밤 소리와 어우러져 숲의 정령이 노래하는 그러로 아련히 들려왔다。그는 문득 사냥꾼이 신선이 될수 있는 〈불출암〉이 해야。〈불출암〉은 벼랑위에 자리잡았다。파연 옹이 숨천할만큼 숲은 한 산의 힘이 있었다。아내의 전설 속의 은자(隱者)의 세계를 알수 있었다。

암자를 기웃거리는데 발짓는 스님이 뛰었다。아문이에 장작을 밀고 있었다。그 스님은 그윽한 눈빛으로 불길이 염마나 힘들었던가 생각해내자 불꽃을 바라만보아도 몸이 녹는 듯했다。스님은 그의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사람과 으때 뛰어저서는 사람이 예의 그러하듯 어색한 눈빛을 보이다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그는 스님과 미소하며 인사를 나누었다。

「눈은만나 길을 잘못들였습니다。」

얼떨결에 내뱉은 말이었다。

아내 앞에서 그는 거짓말을 함의 사가 없는데 곧잘 무정이하고 얼버무리는 식의 답변을 일삼았다。아내를 의심하고 질투하지는 않았다。차라리 아내에게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할 빈틈조차 없었다。그는 아내의 눈과 마주치는것을 피했지만 항상 그녀의 이말가는 소리를 들고있었다。그는 이런 삶속에서 아내를 떠올려야하는 자신이 부끄러웠다。스님이 말을 걸었다。

「길이 험하지요? 겨다가 눈까지 날을테니…」

「갑자기 무사히 왔는지…」어떻게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지…」

「아무튼 잘 오셨습니다。선생님을 지켜주신 커다란 힘에 감사해야지요。

참 지금 하산할 수는 없을테니 제 방에 들어가시지요。」

「아니 괜찮습니다。스님 곁에서 불이나 쬐지요。」「이리오세요。」

두고스님이 방이 잠자리를 깔어놓던 솔을 쫓겨이 조용히 권했다。이윽고 방은 청결하고 벽에는 송복과 간편한 넉넉개의 옷가지가 걸려있었다。앉은뱅이 책상이있고 그 위에는 불교서적과 떠붙어 편권의 수살목과 소설책이 쌓기 뒤죽 쌓여있었다。한내음이 풍기는 인기의 따뜻한 방이었다。방석을 권하면서 스님

「저는 말씀하신 스님이 아니니다。얼마 전에 인산한 하신 행자지요。백일기도에 입재(入齋)하신 스님을 시중들고 있지요。」

마는 초에 장인한 행자는 절 임솔과 뜨거운 눈빛을 가진 지적인 모습이었다。스님들의 살은 넉넉했고? 머리깎은 스님들의 나이를 짐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옷 차림도 그러하듯 수도자와 여행객이기 때문이기라고 그는 생각했다。바람과 눈과 목탁소리가 있는 이런 적막한 산에서는 누구나 다있는 평온해졌것 같았다。그는 불쑥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계속〉

편집자註

그동안 많은 성원을 연재되었던 朴鎭烈군의 「挽」에 이어 이번부터는 金寅鎬군의 「이무기」를 연재하니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가을의 의미

隨筆

어느날인가 몹시도 파란 하늘이 내 작은 눈 속에 들어왔을 때 그 파랗음을 보기 힘들어 그것을 헤치고 들어왔을 때 색한 손놀림으로 옷깃을 여밀 때 나는 분명 또 한 해의 가을을 느껴야 했다。아무러한 말도 필요치 않는 계절의 변화를 맨리는 손놀림으로 느껴야 하는 내 맘 속의 한 가닥 진실로서 하늘 한 모퉁이에 섰다。

여름날, 스쳐가는 옷깃만으로도 옷을 수 있는 만남으로 속가피게하루 하루를 보냄에 만족하며 애써 그 만남의意味를 부여하지않았었다。

그리하여 난 참으로긴 한 시간이 지난 후 아주 소중한 만남의 의미도 잊은 채로 그저 만남 그것을 해왔었다。

하지만 모든 만남이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것이 아니라는 어설픈 생각이 퍽퍽 스쳤었던, 장마비가 몹시 내리던날 그 날에 비로소 나는 뉘우바로 섰 수가 있었다。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는 것이 아닌, 필요해지도록 만나는 그 의미를 깨달았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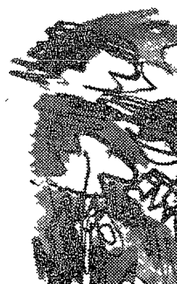
그래서 더욱 더 나의 소중한 친구가 나를 필요로 하도록 서툰 몸짓을 맹렬히 해왔고, 하나 그 서툰 몸짓에 내재한 보잘것 없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던 어름의 끝으로 치달게 되는 아픔을 느껴야 했다。

저리도록 아픈 만남의 쥬유성으로 나는, 옷음으로도 떠날칠수 있는 하늘이 자꾸 날아남을 실감하며, 하늘 한 구석에 서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 멀리게 되었다。

눈물로서만 보려했던 그 머물. 나를 매어두고 한 자리에만 서 있기를 원했던 그 머물에서, 아! 나는 내 작은 머리 위로 부서져 내리는 화사한햇살을 빨리는 몹짓으로 안녕이 가을의 한조각을 잡았던 것이었다。

결코 지는 잘일을 슬허하지 않고, 결코 화려했던 여름 날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결코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않고 나는 가을의 첫 두렁을 열었다。

그토록 많은것들을 요구했던 오만함과는 그 저 한가닥 남은 진실앞 기를 원했던 만남의 의미를 나는 이 가을 부둥켜 안고 결코 외롭지만 쓸쓸하지 않은 잘일의영 채로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해진 마음 꿰맬수 있는 아름다운 벗 될수있어 "솔직한 삶 위해 애쓰는 가을에 진실함 느껴"

가을은 결코 외롭지만 않았던데, 헤진 마음을 요들을 차분히 꿰맬수 있는 여유가 있어 눈에띄는 것이었다。

가을은 결코 지는 잘일을 슬허하지 않고, 결코 화려했던 여름 날들을 기억하려 하지 않고, 결코내가 외롭다는 생각을 하지않고 나는 가을의 첫 두렁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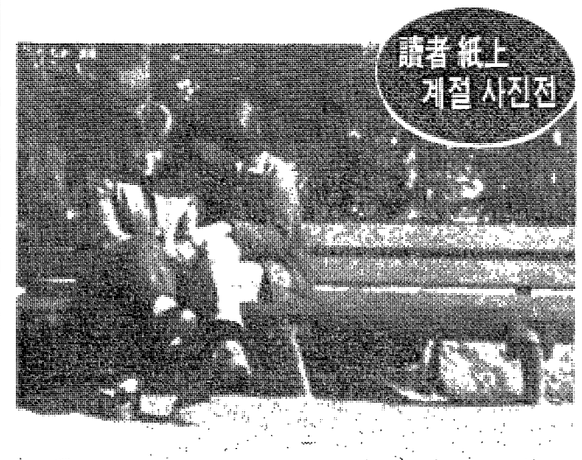
그토록 많은것들을 요구했던 오만함과는 그 저 한가닥 남은 진실앞 기를 원했던 만남의 의미를 나는 이 가을 부둥켜 안고 결코 외롭지만 쓸쓸하지 않은 잘일의영 채로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이다。

가을은 결코 외롭지만 않았던데, 헤진 마음을 요들을 차분히 꿰맬수 있는 여유가 있어 눈에띄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 텅 빈 그것을 채울수있는 가을 정서는 벌이 필수였어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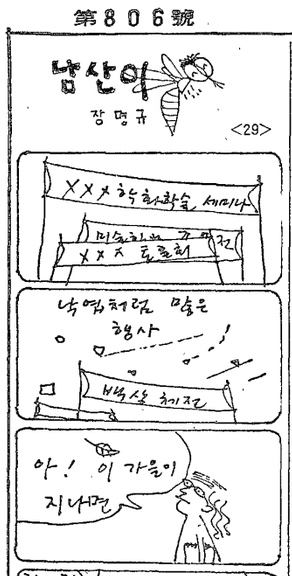
용서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하며 살아있고, 떳떳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가을 정서는 가장 정직한 가을 정서이었다。

가을은 결코 외롭지만 않았던데, 헤진 마음을 요들을 차분히 꿰맬수 있는 여유가 있어 눈에띄는 것이었다。



을씨년스런 가을이다。억울하게 미리 져버린 낙엽의 形骸만 봐도 겨울이 성큼 다가올것만 같은 느낌이다。왜 벌써 추위를 재촉하는지 계절도 얄밉다。계절이 이렇게 극성을 부리면 무엇보다 서로의 體溫이 그리운 법이다。아직 겨울채비는 하지 않았지만 젊은이들은 따뜻한 사랑의 密語로 전혀 추운줄을 모르고있다。

◇사진=윤정은<文理大 史學科>



드리나江의 다리

이보·안드리치著

노벨문학상 受賞作인 이보 안드리치 江의 「드리나江」가 연희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올해 92세인, 유고슬라비아에서 백여년 안드리치는 現在 노벨수상작가의 한 사람으로 대학에서 歷史를 전공했으며 이것이 그의 小說의 끊임없는 자료가 되고있다。作家는 이 소설에서 「石造다리」를 통해 무참하게 흘러가는 세월, 소멸되는 人間, 그리고 한결 때 드높았던 권세나 문명이 마냥 덧없이 스러지는가에 대해 펼쳐내고 있다。

<연희출판사刊·463面·3,500원>

新羅歌謠와記述物硏究

林基中 著

鄕歌硏究에있어서 資料의 限界性을 새로운方法論으로 극복한 力著이다。종래의鄕歌硏究 論著 3백여편을하나하나 검토하여 鄕歌硏究에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귀납하고 그러한문제점을 해결할 방법론을 제시한다음 현전 鄕歌전편을 연구한책이다。특히 그동안 鄕歌의 佛敎文學的 연구에의 偏向性을지양한점을주목할만하다。

<二友出版社刊·420面·8,000원>

문학 안내

時事英語研究
U.S.—Soviet Face-Off (同床異夢속의 美·蘇 神經戰) from the U.S. News and World Report
The North Korean Threat: A Reassessment (北傀의 도발 가능성은 尚存한다) from the Joint Perspectives
The Legacy of Sadat (中東平和체제는 어디로) from the Spectator
Pipe Dream or a Gathering Force? (独逸病의 根源은 무엇인가?) from the Guardian
『한국代表短篇』 英譯 장 마 (BONUS BOOK) THE WHITE HOTEL
NYT Seasonal Editorial / 英語会話(New English 900) / 쥐직영작문 / 英語街 散策 / TOEFL Test / 나의 留学記 / 해외유학 가이드 / 考試英語 / 貿易英語講座 / 映画台詞 차타레夫人의 사랑
11 월호
값 1,800원

英語世界
特輯 Peace Begins at Home (레이건 大統領의 平和論: 平和는 가정으로부터)
Let Us Give Him Time to Relax (사다트大統領 未亡人 지한女史 회고기)
How to Write a Love Letter (멋진 러브 레터를 쓰는 법)
英語청취력 향상법—청취력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
要事記 / 英語講座 / 映画台詞 끝없는사랑
값 1,700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 5의3 時事英語社
정기구독 문의처
서울(266) 9936 (266) 9905 (265) 0509 (260) 2588
부산(43) 3007 (42) 0163
대구(45) 8890 대전(26) 7176
광주(2) 2376 전주(2) 5328
수원(6) 1478 인천(73) 7170

時事英語社발행
NEW TOEFL 最新 就職英語問題集
별도로 카세트 3개 있음
菊版 308面 값 3,000원
4·6倍版 224面 값 3,000원

世界的 Bestseller 「순교자」의 作家
金恩國 全集
순교자
「순교자」는 옴과 도스토예프스키와 알베르 까뮈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은 英文小說 The Martyred의 번역판。 ●金恩國 著/都正一 譯/값 2,800원
The Martyred
金恩國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만들어 준 代表作이며, 人間 양심의 문제를 파고든 問題의 英文小說。 ●金恩國 著/張旺祿 註釋/값 3,000원
The Innocent
前作 「殉敎者」에 이어 미국문단에 확고한 기반을 구축해준 第2作。祖國의 5·16革命을 素材로 한 야심의 역작。 ●金恩國 著/張旺祿 註釋/값 4,500원
Lost Names
나라 잃은 民族의 悲哀와 痛恨을 그린 문제의 제3作으로 日帝下의 韓國民族의 시련을 素材로 한 自敍傳的인 英文小說。 ●金恩國 著/都正一 註釋/값 2,800원
빼앗긴 이름
迫力있고 生動感 넘치는 Lost Names의 분위기를 유창하고 생생하게 옮긴 金恩國 第3作의 한글 번역판。 ●金恩國 著/都正一 譯/값 2,800원

작가 金恩國(Richard E. Kim)은 현재 플브라이트 교환교수로 서울大学校에서 美国文学을 강의중이며, 그의 来韓을 계기로 読書界에 다시 그의 선풍이 일고 있읍니다。
時事英語社 전국 서점에서 판매중! 주문전화: (269) 6623 (261) 5258

文化短信

本校극예술硏 아일랜드定期公演

극예술연구회 (회장=권수명·법학2)에서는 제16회정기공연으로 「아일랜드」를 11월9일부터 11일까지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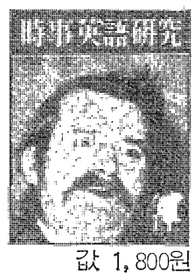
이번 공연은 남아연방의 아돌푸가드와 윈스톤 맹초나맨 존카니넘이 공동구성한 「아일랜드」를 동하여 흑인죄수를 수용하는 더서양의 악지인 빈점을 폭로로 반정부, 반인종차별적인 주자가 많이 들어있다。

특히 출연하는 회원들이 머리를 삭발해 더욱 연극의 분위기를 살려주는 열정도 보였다。

서울대國樂科 정기연주회가져 국립극장소극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는 오는6일 오후7시 「제23회 국악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관악합주 덕악합주 관현악합주등이 연주될예정이다。



메아리

벙어리 냉가슴

▲최근 시내 대학들에서 불수 학교 등지에 있는 일들의 공교육 제도를 폐지하여 유심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내용인즉 본교를 비롯하여 대학 인격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것이다。그저 날씨 탓들은 거리에는 그 원인 이 부족한것 같다는 얘기다。행사의 주인공들이 학생일진대 정작 주 인들이 자리를 메워주지 않으니 자리는 텅 빈수 밖에 없다。어떤 대학에 선 예정된 행사자체가 취소된 예도 있었다。언제부턴지 뙤볕이 되는 얘기지만 하느냐 마느냐로 행사를 아예 계획도 않은 곳도 있었다。알다시피 서울대의 경우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뭇生示威일어나 행사장이 되다시피하는 행사의 보다 적절한 모하기도 했다。▲본교의 경 원인이 될것같지 않은데 사실 이 「삼성을해주시오」라는 요청은 구호는 오직 4백여명을 헤아렸던 반한데 벙어리고 마는지…。

▲학생들을 위의 벙어리 냉가슴 않는 한 학생들의 행사가 학생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말것이다。

東大新聞社 編輯局 : 서울特別市 동대문구 회기동 1 東大 文理大 內 電話 : 962-0101 (內線 : 2-3)
發行人 : 李 鍾 鎬 / 編輯人 : 李 鍾 鎬 / 印刷人 : 李 鍾 鎬
印刷所 : 東大新聞社 / 定價 : 一部 20원 / 年 240원 / 郵稅 : 年 240원